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 형 철
문학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1 내가 교수로서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배우는 일이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직업의 본령은 차라리 배우에 가깝다. 게다가 학생이 하는 질문 중 어떤 것이 내게 와서 오히려 답이 되는 일도 많다. 맹렬하게 인문학을 공부하는 한 제자가 내게 말했다. 지식에 대한 자신의 욕망이 본질적으로는 권력에 대한 욕망처럼 느껴진다고. 아니, 도대체가 무언가를 알고 싶고 탐내 드는 것 자체가 그 대상에 대한 폭력인 것은 아니냐고. 과한 반성이라고 답을 건넸지만 그 질문의 여운이 내게는 길었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말해 주고 싶다. 너의 그와 같은 근본적인(radical) 고민은 그 고민 자체가 바로 답이라고.

종교칼럼



정 세 완
원불교 농성교당 교무

가을입니다. 여자 분들은 봄이 되면 마음이 살랑 살랑 들뜨고, 남자들은 가을이 되면 마음이 허전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을 여자의 계절이라고 하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봄은 음 기운이 양 기운을 만나는 때요, 가을은 양 기운이 음 기운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들뜨고 가라앉는 것 역시 자연의 조화요, 마음의 작용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면서 버리는 계절입니다. 버림은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무등산 원효사 위의 계곡의 물도 더없이 맑습니다. 나무들이 여름내 빨아 들었던 물을 토해내기 때문임

기 고



김 동 준
광주시의원

요즘 시간을 거슬러 원시부족시대로 시간탐험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 현재의 국가정책운영이 그렇다는 것이다. 마치 양파를 까듯이, 국가정책의 사결정시스템의 사유화와 국가 예산권에 대한 ‘최순실 무리들’이 저지른 전횡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방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지역과 관련된 국가정책 사안에 대한 많은 의혹들의 실체와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대통령을 위한 다섯 개의 메모

#2 재직 중인 학과에서는 매 학기 문인 특강을 여는데 이번에는 이성복 시인을 초대했다. 학생들에게 시인을 소개하면서 내가 아는 이런 내용을 전했다. 시인은 평생 접한 문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아 몇 권의 노트를 만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는 것. 그래서 운동을 할 때면 그 문장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고는 한다는 것. 무엇보다 외우기까지 하는가. 어디 가서 폼 나게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닐 것이다. 그 문장들 속에 담겨 있는 질문을 수시로 다시 묻기 위해서, 하여 바닥까지 남김 없이 다 물어 버리기 위해서일 것이다. 누구나 생각을 한다. 그러나 끝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3 얼마 후 손택수 시인도 특강을 했다. 시인은 대상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관찰하는 것이야말로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다. 자신은 고등학교 3년 내내 교정의 석류나무를 보았고 어쩌면 그때 시인이 된 것 같다고, 강연 말미에 한 학생이 시인에게 물었다. “요즘에는 무엇을 즐겨 보시나요?” 가볍게 던진 질문이었으나 뜻밖에도 시인의 대답은 심각했다. “학생의 질문은, 당신은 지금 이 사회

버림과 채움

니다. 또한 농부들은 1년 농사인 곡식 수확으로 바쁘고, 우리들은 한 해의 복과 죄를 결산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한 해 동안 얼마나 복을 짓고 살았는지 생각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님은 “하늘은 짓지 아니한 복을 내리지 않고 사람은 짓지 아니한 죄를 받지 아니 한다”(天不降不作之福 人不受不作之罪·천불강부작지복, 인불수부작지죄)고 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지은 복은 가만히 있어도 도움을 받을 것이요, 남이 시켜서 지은 복은 내가 달라하여 받을 것이요, 억지로 지은 복은 사정사정해 야 받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주역에서도 덕을 베푸는 집안은 경사가 오고 덕을 베풀지 않는 가정은 재앙이 따른다고 했습니다.(積善之家 必有余慶, 積不善之家 必有余殃·적선지가 필유여경, 적불선지가 필유여앙) 진리는 영원하고 인과보응된 것이기 때문에 짓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없습니다. 복이 있어야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야 인연도 모입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최순실·차은택 예산’ 문화전당에 배정해야

특히,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및 사업 예산에 대한 의혹들이 최순실의 농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확정해 국회 심의에 들어간 내년도 문화전당 예산은 680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통합사업’, ‘문화창조센터 건립’ 등 모두 12건 사업에 17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문화창조센터 건립’은 현 정권의 막강한 지원 아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은 올해 904억원, 내년에는 41%가량 증가한 1278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2020년까지 7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사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의 성격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실행해야 할 사업들이다. 하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런 중

요와 주변 사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라는 꾸짖음으로 들립니다. 맞아요. 반성할 일입니다.” 말하자면 동문서답이었는데 이 순간이 내게는 인상적이었다. 원래 시인이란 작은 것에서 큰 반성을 이끌어 내는 이들인 것이다. #4 학생들과 오스카 와일드의 유명한 동화 ‘행복한 왕자’에 대해 토론한 것은 며칠 후다. 살아서는 궁전 안에서만 지냈으므로 세상만사가 행복했던 왕자가 죽어 동상이 되어 도시 높은 곳에 세워져서 세상에 솔한 불행이 있음을 뒤늦게 보고 알게 되어 비통해 한다. 왕자의 부탁을 받아 왕자의 동상 곳곳에 박혀있는 보석을 떼어 불행한 이들에게 전달하던 제비는 그만 때를 놓쳐 겨울을 맞아야만 했고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며 행복하게 죽어 간다. 이 동화의 외곽 주제 중 하나는 ‘변화’다. 존재의 변화는 아름답다는 것,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그토록 어렵다는 것. 왕자와 제비는 둘 다 죽음을 통과하면서 진정으로 변할 수 있었으므로. #5 ‘듣기의 철학’(와시다 키요카즈)이라는 책을 보니 노인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어느 직원의 말이 인용돼 있었다. 그에 따르면 ‘터미널 케어’(말기 간호)의 경우

있는 사람들은 배품어야 할 시기입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마음의 국량이 넓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자비가 베풀어집니다. 또한 이 가을에 나의 마음이 얼마나 맑아지고 밝아지고 훈훈해 졌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공부는 마음의 여유를 갖추자는 것이며, 매사를 바르게 보자는 것이며, 매사에 바른 행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공부는 마음의 평수를 넓히는 것입니다. 아파르트도 평수가 넓어야 장풍도 들어놓고 선풍기도 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100킬로그램 정도의 무게를 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키우면 우주를 들 수도 있습니다. 작은 항아리는 물을 많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테두리가 없는 항아리라야 우주의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연관리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무관한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료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누구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그 본질이 있다는 것이었다. 죽어 가는 사람 옆에 있어주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케어라는 것. 그러므로 케어란 누군가에게 ‘시간을 주느’ 일이라는 것이었다. 재앙의 현장에서도 단지 ‘옆에 누가 함께 있다’는 그 느낌이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말도 거기에 있었다. 이상 다섯 개의 삽화들은 모두 최근의 것이다. 경험과 독서가 자꾸 하나의 주제로 모여드는 때가 있는데 요즘이 그렇다. 근본적으로 고민한다는 것(#1), 끝까지 생각한다는 것(#2), 언제나 반성(성찰)할 준비를 갖추고 산다는 것(#3), 그를 통해 존재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4),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서 선다는 것(#5). 이 모든 것을 대통령과 더불어 생각한다. 최 씨 일가를 만난 이후 40여 년 동안 그는 근본적으로 돌아본 적이 없었을까, 그래서 한 번도 결정적으로 변해본 적이 없었을까, 그래서 2014년 4월 16일과 그 이후에도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 있지 못했던 것일까. 그를 생각하며, 그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날들이다.

인연 등으로 얽혀져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또한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 큰일을 하기 수월하니 가까운 인연을 잘못 두면 평생에 어려움이 많나니라”고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광장의 100만 인파가 모여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행국의 단초도 인연관리를 못한 대통령의 책임이듯 서로 공부하는 인연, 충고해주는 인연, 상생의 인연이 되도록 관리할 해야 합니다. 이 인연 중에는 가족의 인연인 혈연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과의 인연인 불연도 중요합니다. 불연은 영생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을에 복의 열매, 마음의 열매, 인연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얼마나 공들였는지 반조하면서 일차 결산을 해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나 생활이 흠어져 있다면 추스르는 계기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 說

‘청와대의 대반격’ 국민 분노만 더 키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사퇴 압박에도 버티기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재장악까지 시도하고 있다. 백만 촛불 시위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인 듯하던 청와대와 ‘친박’들의 대반격도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부 관료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앞서 옛그제에는 엘시티(LCT)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야당은 귀가 의심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누가 누구를 엄단하느냐”며 일제히 맹비난을 쏟아 냈다.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야권이 대통령 하야 촉구 공조를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과 법률이 있음에도 여론 물의를 통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인민재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박 대통령 퇴진투쟁을 인민재판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비난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도 호위무사 대열에 합류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직을 맡았던 정 전 총리는 어제 언론에 배포한 개인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진실

규명도 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무한 책임을 지라는 요구와 주장, 그 또한 결코 법 앞에 평등이 아니다. 일시적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금기시하는 마녀사냥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95%의 분노를 ‘일시적 분풀이’로 매도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무시하는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청와대의 버티기와 정면돌파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분명히 후면퇴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퇴임 후가 어떻게 될지는 그려진다고. “앞으로 걸어 나오지도 못하고 뒷문으로 도망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어찌 됐든 두 차례의 대국민 사과와 한 차례의 국회 방문에서 수사 협조 등을 약속했던 박 대통령은 최근 급격히 돌변, 성난 민심을 향해 정면 돌진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분노만 더욱 키울 뿐이다.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또다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려 합류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직을 맡았던 정 전 총리는 어제 언론에 배포한 개인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진실

수서발 고속철(SRT) 전라선 운행 절실하다

여수와 전주·곡성·순천만 등에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SRT(수서발고속철) 전라선 운행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 등 전라선 권역 7개 시·군 단체장은 엇그제 정부에 수서발 고속철 전라선 운행을 촉구했다. 이는 다음 달 운행 개시 예정인 SRT가 전라선에는 운행을 하지 않아 지역민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이다. SRT는 현행 KTX보다 요금은 평균 10∼15%가 싸고, 운행 시간도 광주 송정역 기준 1시간 30분밖에 안 되지만 전주에서 여수까지 전라선권만 배제돼 있다. 특히 여수의 경우 날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전라선 구간은 전주 한옥마을, 남원 춘향테마파크, 광양 대하축제 등으로 교통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

만 아직은 교통편이 불편해 성장세가 막히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 3월 정부가 확정 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라선과 전라도 지역에 대한 정책이 빠져 있는 점이다. 관광객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는 여수시 등 전남 동부권 시·군들로서는 아쉽기 짝이 없는 일이며 용산발 KTX 증편에 사할을 끌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여수를 찾는 관광객의 KTX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KTX증편과 SRT 전라선 운행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충분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전라선 복선화와 SRT 전라선 운행 그리고 KTX 증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공자(孔子)는 현실에 기반을 둔 합리주의자였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실현’을 목표로 평생 전하를 주유하며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귀신에 의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공자의 말과 행적을 어록의 형식으로 담은 ‘논어’(論語)에는 귀신과 관련된 언급이 두어 번 등장한다. 하지만 이들 발언은 ‘귀신의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방점이 찍힌 것들이다. 논어는 총 20편으로 이뤄져 있는데, 옹야편(雍也篇)엔 오늘날 널리 쓰이는 ‘경원’(敬遠)이라는 말의 유래가 나온다. 제자 ‘반지’가 “안다(知)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백성이 도리(義)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귀신을 공경하면서도 멀리하면 ‘안다’(知)라고 할 수 있다(蓺民之義 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라고 답한다. 경원의 본말인 경이 원지(敬而遠之)가 여기에서 나왔다. 또 논어 선진편(先進篇)에는 공자의 제자 중 가장 충성스럽고 용맹한 ‘자로’가 귀신과 죽음에 대해 단도직입으로 묻는 장면이 나온다. 자로가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라고 묻자

신탁(神託)

공자는 이렇게 답한다. “아직 사람도 섬길 수 없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스승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자로가 곧바로 질문을 던진다. “감히 죽음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자의 대답은 역시 의연하다. “아직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과연 공자다. 모르는 것은 역시 모르는 것이다. 어느 누가 알 수 있겠는가. 하지만 모르는 것을 ‘안다’고 속이는

사람 역시 부지각수(敝遺)이라는 말의 유래가 나온다. 제자 ‘반지’가 “안다(知)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백성이 도리(義)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귀신을 공경하면서도 멀리하면 ‘안다’(知)라고 할 수 있다(蓺民之義 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라고 답한다. 경원의 본말인 경이 원지(敬而遠之)가 여기에서 나왔다. 또 논어 선진편(先進篇)에는 공자의 제자 중 가장 충성스럽고 용맹한 ‘자로’가 귀신과 죽음에 대해 단도직입으로 묻는 장면이 나온다. 자로가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라고 묻자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 부 220-0649 정 지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제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220-0195) (FAX 220-0551) (FAX 222-0195)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